

순천 문화유산야행 4만8000명 즐겼다

향동·매곡동 일원서 4일간 진행
교육·선교 유산 가치 조명 '차별화'
푸드트럭·인근 식당·카페들 성황



매산동 선교마을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 공연은 순천 문화유산야행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순천시의 문화유산 야행이 관람객 5만명에 육박하는 큰 호응 속에 야행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4일간 순천 향동(선비마을)과 매곡동(선교마을) 일원에서 진행된 문화유산 야행이 4만 8000여명의 방문 속에서 감동의 여름밤 여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유산야행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팔마비-순천향교 구간을 넘어 매산동 일원까지 확장하여, 전통문화유산과 100년 전 선교사들이 남긴 근대 의료·교육·선교 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차별화된 시도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총 15 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건축과 유산의 의미를 담아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또한 건축과 문화유산 그리고 정원을 주제로 3가지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야행의 하이라이트는 100년 만에 민간에게 개방된 매산동선교마을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 공연이었다. 공연은 고라복(코릿) 선교사를 화자로 하여 조선의 사람들과 만나는 독백으로 시작되었으며, 100년의 세월이 담긴 선교·의료·교육의 발자취를 보여줬다. 매산동 일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근대 유산의 가치를 낭독 퍼포먼스·영

상·오케스트라 앙상블·레이저 아트·설치 미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야행은 방학기간 동안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겨냥한 핀셋 포인트가 됐다. 인기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객들이 스스로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행사장 내 푸드트럭은 연일 준비한 물량을 소진했고, 인근 카페와 식당들도 밤 늦게까지 영업했다.

특히 이번 문화유산야행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돋보였다. 순천소방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고, 향동과 매곡동 지역 주민들은 보조인력으로 참여하여 야행의 밤을 함께 밝혔다. 순천경찰서·모범안전자회·문화유산돌봄센터·순천 매산고·매산여고·매산중·순천향교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정재훈 약사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내달 3일 광양용강도서관서

약사 겸 칼럼니스트 정재훈 작가의 북 콘서트가 내달 3일 광양용강도서관 마로극장에서 열린다. 광양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북 콘서트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책을 통한 깊이 있는 사고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콘서트에서 정 작가는 그의 저서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식의 과학'을 주제로 강연한다. 책의 주요 내용과 집필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 작가는 그간 과학적 지식과 일상적인 주제를 결합해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아왔고, 다양한 방송과 칼럼을 통해 대중에게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 왔다.

이번 강연은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이달 20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용강도서관에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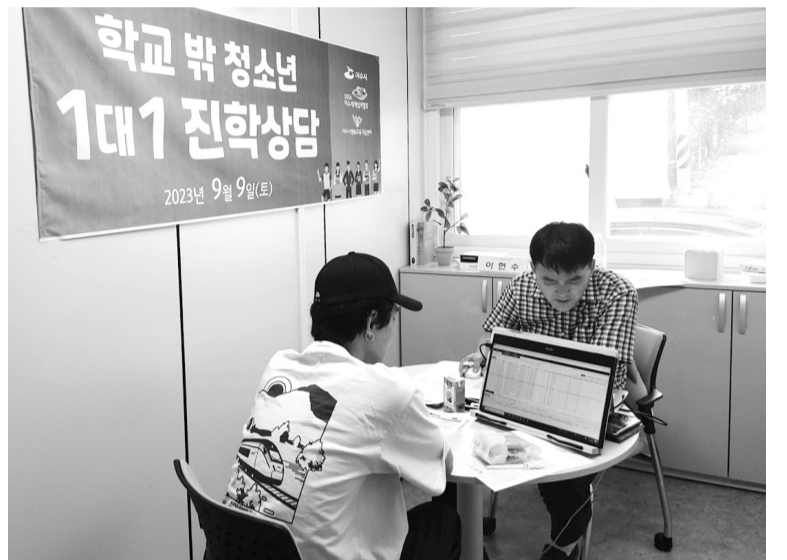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학교밖 청소년 1대1 진로·진학 상담

여수시가 '검정고시 청소년'의 진로 상담에 나선다.

여수시는 '학교밖 청소년 진로·진학 1:1 맞춤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검정고시에 응시한 후 진로 고민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 진로 및 진학 방향을 사전 조사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사진>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061-659-5216)로 전화 신청하면 되고, 상담은 31일 오전 10시부터 회차별로 5명씩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 고민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대입 진학 상담 ▲수시·정시·면접 준비 ▲계열별 입시 설명회 ▲학생부 및 공부법 특강 등 지역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다낭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참가...해외 관광객 유치

호남농악단 공연 등 매력 알려
체험부스 운영 현지인들 호응



전할 수 있는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선짜공과와 우

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면서 다양한 국제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이 해외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체에 적극 나섰다.

구례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2024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에 참가해 관광객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구례군이 참여한 다낭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은 다낭시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베트남의 지역 대표 축제로 올해 3회째이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이 구례군의 우수 교류 도시인 다낭시 선짜군 동해공원 일대에서 개최됨에 따라 구례군은 호남여성농악단을 파견해 군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렸다.

페스티벌에서 호남여성농악단은 개막식 무대에 올라 흥겨운 농악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군에서 운영한 압화 손부채 만들기 체험 부스에는 꽃으로 만든 이색적인 예술 작품에 매료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구례군과 선짜군은 올해 1월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두 도시가 상생 발

고흥군 9월 20일까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고흥군이 오는 9월 20일까지 '2024 고흥군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진행된다.

고흥 주민뿐만 아니라 고흥에 직장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인구정책 ▲경제 활성화 ▲지역 개발 ▲문화·관광 ▲군민복지 등 지역의 변화 발전을 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및 정책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공모제안' 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받아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제안 검토 후 실시부서와 제안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6명을 선발하며,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는 평가항목 합산 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은 제안채택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 공모전에는 총 63건이 접수됐다. '고흥의 밤 음악 공연 및 먹거리 금요 장터', '거금도 노을 테마공원 조성', '고흥의 자랑 테마길 조성' 등이 선정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하나 하나가 모여 정책의 큰 흐름과 고흥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소중한 아이디어로 고흥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